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S&P's, 유럽 보험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

□ S&P's는 투자수익의 급격한 하락으로 유럽 주요 보험회사의 자본수준 적정성과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 보험회사 대부분의 신용등급<sup>1</sup>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.

- 네덜란드계의 Aegon은 A+에서 A-로 2단계 하락, ING는 AA-에서 A+로, 이탈리아계인 Generali는 AA에서 AA-로, Aviva는 A+에서 A로 각각 1단계 하락함.
- 반면 Allianz는 AA 수준을 유지시켰고, Axa도 현 수준을 유지함.
- 다국적 보험사들은 S&P's의 보험회사 신용등급 결정 요인<sup>2</sup> 중 자본적정성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최근과 같은 금융환경에서는 다국적 보험사 등이 자본을 확충하는데 제한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, 총체적인 자본조달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힘.

- 1) S&P의 신용등급 기준: AAA(extremely strong), AA(very strong), A(strong), BBB(good), BB(marginal), B(weak), CCC(very weak), CC(extremely weak), R(지급불능), NR(미평가)로 구분되며, plus(+)와 minus(-)는 AA부터 CCC까지를 대상으로 기준 등급으로부터의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
- 2) S&P의 보험회사 신용등급 결정 요인: ①경제 및 산업리스크, ②경쟁력, ③기업전략, ④기업리스크관리, ⑤수익창출, ⑥투자, ⑦유동성, ⑧자본적정성, ⑨자본조달 유연성

□ S&P's는 증권시장의 취약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신용리스크 확대가 보험사의 향후 신용등급 하락 추세 전환에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힘.

- 그러나 경쟁력, 사업 기반, 유동성 측면에서는 다국적 보험사들이 비교우위에 있으며, 수익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함.
- 또한 생명보험은 증권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액연금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수익의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생보사의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손보사 보다 높다고 전망함.

보험사	전망	원인
Aegon	부정적	2009년 투자 손실 20억 유로 예상, 수익 감소 20% 예상
ING	부정적	2009년 영업환경 악화(증권시장, 신용 손실, 낮은 금리)/ 보험·은행영업의 건조한 성장시 안정적 전망으로 전환
Allianz	안정적	보험영업 부문, 자본 수준, 대출 담보율이 적정 수준임. 자본수준이 A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, 지급준비금 130% 이하일 경우 부정적 전망으로 전환
Aviva	부정적	2009년 자본적정성 악화, 수익 감소, 재무레버리지 30% 이하 예상

주: '부정적' 전망은 18~24개월 후 신용등급 하락을 의미

(S&P's ratings 각사 보도자료 3/31, Financial Times 4/1)